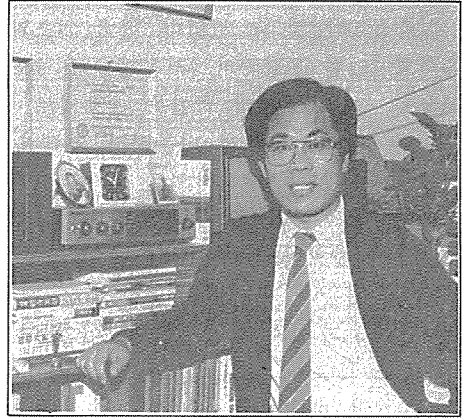


恩 師 訪 問

맹 광 호

(가톨릭의대 교수·예방의학)



지난주말, 마침 전주에 강연이 있어 내려간 길에 나는 가족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승용차로 약 한시간거리에 있는 전라남도 장성 사거리라는 곳까지 다녀왔다.

중학교 3년동안 동급생이던 우리부부 모두에게 국어를 가르치신 여선생님 한분이 그곳의 중학교에 교장으로 계셨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을 떠날때부터 우리는 이 은사방문을 미리 계획했고, 그래서 전날밤에 전화도 미리 걸어 놓았을 뿐 아니라 그곳이 시골인점을 생각해 냈던 아예 낡은 승용차를 내가 직접 운전해 내려가는 모험까지 했던 것이다.

선생님을 찾아 뵈겠다는 전화를 했을 때도 그랬지만 정작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선생님이 반가워 하시던 모습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다.

우리를 하루저녁이라도 재우실 의향으로 새로이불까지 꾸미시고, 낮에는 우리가 언제 도착할지 몰라 잠시도 집을 비울 수가 없었다는 선생님의 흥분된 모습에서 나는 연전에 돌아가신 장모님을 보는듯까지 했다.

중학교를 졸업한지 올해로 꼭 30년.

그동안 이 Y선생님과 우리 부부사이에는 비교적 왕래가 잦은 스승과 제자 사이였다.

내가 대학을 다닐 때까지는 주로 내편에서 선생님을 찾아 편지도 드리고 방학을 이용해서 방문도 한 편이었지만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집

사람과 결혼한뒤 내가 학교에 남으면서는 선생님이 우리들을 더 자주 찾아 주신 편이다. 그것은 우선 내가 직장일로 바빠진탓도 있지만, 평교사를 지나 교감, 교장이 되신 선생님께서 이후로는 여러가지 회의나 교육때문에 서울 나들이가 많아 지셨고, 그때마다 선생님은 거의 예외없이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시곤 했던 것이다.

달리 서울에 묵으실곳이 없으신것도 아닌데 선생님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심으로써 무엇보다 우리를 늘 기쁘게 해 주시곤 했다.

나도 나지만, 집사람마저 당신의 제자인점이 무엇보다 그렇게 우리집에서 묵는 일이 선생님께 수월했던 탓이리라.

물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찾으실 수 있는일이 단지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는 정때문에 마음이 편해서 만이 아닌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그 보다는 우선 우리가 그분을 스스로 그리워하고, 또 우리는 적어도 그분께 늘 자랑스런 존재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분이 느끼시고 계신 까닭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부모 마음은 자식 스스로 부모가 되고파야 안다는 말이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에 남아 학생들과 함께 지낸지 나도 이제 20여년. 그러나 나 스스로 학생기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공부에만 전념했던

전반부 십수년동안은 내가 누구의 스승이라든지, 그래서 나도 제자를 가지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해 본적이 없다.

아니, 우선 이동안은 남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생각 해 주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만큼 젊고 모 든게 미숙했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지난 한두해사이, 나도 이제는 스스로 대학선생이라는 자각과, 그래서 두고두고 적잖은 제자들의 스승이 되는 위치에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졌다.

이런자각이 나로 하여금 어떤 선생, 어떤 스승으로 기억되도록 생활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결의로 연결 되는 것 또한 두말 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재미있는 일은, 이런 변화가 내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 일어난 것이라기 보다 역시 나를 거쳐간 제자들을 통해서 생겨나게 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가령 해마다 연말연초에 제자들이 보내주는 인사카드의 수효가 늘어나고 있다든지, 오다가다 들리는 동네병원 의사들중에 반갑게 인사하는 제자들이 많아져 간다는 아주 구체적 사실들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카드속에 정성들여 적어보내는 몇줄의 인삿말에 가슴이 뛰고, 몰라보게 어른이 된 차라리 근엄한 동네 의사선생님들 한테서 그들이 스스로 제자라는 반가운 인사를 해올 때 비로서 내가 대학 선생이고, 그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어쩌다 제자들중에 훌륭한 의학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다거나, 환자들을 잘 돌보는 좋은 의사가 되었다는 얘기를 남한테 들을때 기쁘고 고마운 마음은 또 이런 스승된 자각밖에서는 도저히 느껴 볼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하다.

스승이란 그저 제자들이 생각해 주는 일만으로도 기쁘고, 그들이 스스로 훌륭하게 되는 일만으로도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니까, 어쩌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로부터 옛 추억이 담긴 편지 한장을 받는다거나 불의의 인사방문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감격해 마지 않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몇해전 나는 어느 신문사의 요청에 따라 잊혀지지 않는 은사 한분에 관한 짧은 글 한편을 써준적이 있다.

중학교에 잠시 교장선생을 지내신 S선생님은 코밑 수염의 위풍있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에게 자상하셨고, 월요일 조회 때마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훌륭한 분이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 관한 글을 써준것이다.

얼마후에 한동안 찾아뵙지 못한 죄송함과 그리움도 함께 담은 이 한편의 글을 우연히 읽게 된 선생님이 너무나 좋아 하시더라는 얘기와, 그 글을 액자에 그려 넣고 벽에 걸어 두기까지 하셨다는 얘기를 뒤에 다른 사람을 통해 듣고나서 나는 또 얼마나 감격해 했는지 모른다.

이런 애틋한 스승과 제자사이의 정감은 역시 그것이 국민학교때거나 중·고등학교때의 일인 경우가 많다.

물론 대학 선생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전혀 없으란법도 없고, 또 실제로 다른 대학선생들은 간간히 적잖은 제자들과 해후하며 옛일을 즐기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지만 이런면에 있어서 의과대학은 다른 대학들과 또 다른데가 있다. 학생들이 하도 여러과목을 배우고 또 어떤 과목은 단 한학기에 끝나고 마는 경우도 없지 않아서 좀체 저런 깊은 사제지간의 관계성립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잊지않고 연하장이라도 보내주는 제자들이 늘어나고, 또 그들이 각기 여기저기서 훌륭한 임상가가 되어 환자들을 잘 돌봐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면 될일이지만, 이점에 관한한 나는 역시 내가 의과대학 교수인 것에 대해서 어떤 아쉬움을 느끼며 지내는 편인것이 사실이다.

차마 떠나보내기 싫은 눈치의 Y선생님을 뒤로 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우리 부부는 스스로 굉장한 일이라도 한것같은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시간을 내어 다른 은사님들도 찾아 보자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함께간 애 녀석이 무엇인가 예사롭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은 두말할 것도 없이…….